



Scene #1 New Jersey에서 출발하는 출근 버스 안,

한 이슬람 형제는 스마트폰으로 무엇인가를 읽고 있다. 아랍어로 되어 있으니 나는 그 내용을 알리는 없고, 다만 그 구성의 생김새를 보아하니 경전같아 보인다. 그 몇자리 앞의 한국인 자매는 생명의 삶을 읽고 있으며, 내 옆에 앉아 있는 젊은 분은 비좁은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15인치 노트북을 꺼내 놓고 뭔가를 타이핑 하신다. 아 한글이다. 온통 신학용어로 가득하다. 신학생인 모양이다. 인도 친구들 몇은 버스 맨 뒷자리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물론 난 절대 알아 들을 수 없는 인도말로 말이다. 사실 인도말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내 옆에 서있는 중국 친구들은 지난 몇년간 뉴욕/뉴저지의 주택 동향과 자신들이 작년에 구입한 부동산의 값이 오르고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중국어로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나비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시는 백인 아저씨 한 분은 가장 이방인 같아 보이게 두툼한 뉴욕타임즈 신문 뭉치를 독파하고 계신다.

매일 보는 이 버스 안 모습.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없다. 동양인 체형에는 맞지 않아 허리와 목이 불편한 의자 디자인을 불평하며 그저 눈을 감는다.

Scene #2 Manhattan의 Port Authority Terminal 앞

버스를 내리는데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밀려온다. 아마도 지난 밤 이곳 승강장에서 노숙자가 잠을 잔 모양이다. 어느 도시든 터미널 앞은 부산하다. 8 avenue로 나서면서 들어오는 풍경 또한 그리 달갑지는 않다. 멋지게 뽐힌 디자인의 뉴욕타임즈 건물을 배경으로 길거리에 누워 자고 있는 노숙자들, 구걸하는 좌판을 깔아 놓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잘 생긴 젊은 청년,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고, 술 또는 마약에 취해 보이는 중년의 여성. 어떻게든 부딪치지 않고 피해가려 요리조리 잔걸음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는 중에 예외 없이 어디선가 맡게되는 길거리 대마초 냄새. 아 아침부터 재수 없다.

Scene #3 사무실

사무실이다. 40-50명 정도 작은 규모의 사무실이지만 민족으로 치면 8-9개 민족이 함께 일한다. 특히 중국 프로젝트가 많은 우리 오피스의 중국인 직원의 비율은 꽤 높은 편이다. 이 중 중국에서부터 믿음을 가져온 자매도 있고, 미국에 유학 와서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교회를 나간 중국 형제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나 예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 그저 각자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 최선을 다해 생활한다. 얼마전 이혼 한 동료는

전처와 자녀들의 생활비를 위해, 중국으로 곧 돌아가 자신의 사무실을 열고 싶어하는 젊은 직원은 어떻게든 현지 네트워크를 늘려가려고, 아직 인턴인 두명의 직원들은 정직원이 되기 위해, 곧 결혼을 앞두고 월세라도 줄이기 위해 동거를 시작한 직원은 결혼식 준비를 위해...

타이완, 한국, 조선족, 중국, 필리핀,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홍콩, 태국, 이스라엘, 방글라데시, 캐나다.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직원들의 여권 종류이다. 여권 색깔만큼이나 성격과 태도들도 가지각색이다. 실망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 그런데 종종 신입 직원의 첫 출근 날 후회한다. 저 친구 왜 뽑았지...?

직급이 높은 미국인 직원 한명은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형제다. 나이도 50이 넘었고, 일은 정말 잘한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해 소리를 지르거나 책상을 마구 쳐댄다. 때로는 특정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도 한다. 물론 이유는 있다. 하지만 당연히 함께 앉아 있는 동료들은 가슴이 철렁한다. 이미 이력이 난 직원들은 또 저런다고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상하이 오피스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진다. 이런...

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문,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듣는 질문 한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직장인에게도 BAM이 필요한가요?” 또는 “BAM의 영역에 직장인이 포함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은 CBAM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고, 또한 의미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선교지의 지역적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위의 출근길과 사무실 풍경의 이야기와 같이 제가 서 있는 곳에 선교의 대상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총체적 선교라는 미션의 가치와 미셔널라이프라는 미니스트리의 가치가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삶과 교회에서 크리스천 삶의 모습이 더 이상 구분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직장인의 수가 비즈니스 오퍼의 숫자보다 훨씬 많고, 그 영역을 통해서 일터에 큰 영향과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BAM에서 이야기하는 활동으로의 비즈니스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BAM의 가치를 우리가 서있는 곳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체 혹은 직장에서 어떠한 직분으로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나의 예배가 되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저는 몇가지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전문성입니다. 브랄셀(출36:30-35)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장, 사업체에서 영성을 훈련하는 것과 전문성을 훈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성과 전문성의 발전을 통해 자신의 영역 안에 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지루할 것입니다. 시므온(누가 2:25-35)의 기다림을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임하여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 말씀을 듣고, 하루 하루를 살아가며, 정결히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채워 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기다림은 목적이 있는 기다림일 것입니다.

셋째, 직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peacemaker)로서의 모습입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의 모습이며, 비즈니스 세계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당연한 모습입니다. 가장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평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또한 직장 구성원들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평화는 실질적인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며, 지혜로움과 영적인 판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결코 녹록치 않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라는 작은 소망은 문화와 민족과 종교가 뒤섞인,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씩 확장되며 이것이나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담대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램이 세상의 땅끝인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하루 하루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유 현 석

Design Director, Archilier Architecture, JES 코디네이터



BAM 기업소식

캐나다 원주민 선교
GITXM 김진수

나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나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교에 사용하실 계획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실 때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자세한 것을 모르게 하시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할 때 그리하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한 후는 4년도 아닌 40년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처음부터 40년 동안 광야생활인 줄 알았으면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도 원주민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르셨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원주민에 대하여 잘 알았더라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주민 사역 시작한 것을 후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원주민을 모르게 하시고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일을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원주민 상황

내가 일하고 있는 Gitanyow는 알래스카 남부와 인접한 캐나다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주민이 약 500명 정도 살고 있고 인접 마을의 인구를 합하면 약 2,000 명이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총 인구는 약 120만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명중 1명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일반 평균치의 6배이고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비율은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25세 이하가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원주민 문제는 이대로 방치하면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생산적인 직업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등의식이 팽배해 있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그들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 부르심

5년전만 하더라도 나는 캐나다 원주민을 위하여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이 원주민 마을로 단기선교를 갔습니다. 단기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학생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에스더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큰 형님은 알코올 중독자이었고 둘째 형님의 군대 복무 중 자살하셨고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 높은 자살률, 저학력, 이 세가지는 원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각성회사

그리고 나서 1년 후 그곳에 Gitx Mushroom 약자로 각성이라는 회사를 원주민 2명과 같이 창업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원주민에 의한, 원주민을 위한, 원주민 회사를 최종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설립 목적에 이익금의 20%는 선교에, 그리고 또 다른 10%는 교육에 사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은 점진적으로 원주민에게 모두 이양 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을 다 이전 한 후에도 이 회사를 통하여 지역 교회가 필요한 제정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비즈니스 선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원주민교회는 선교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외부로부터 계속하여 지원을 받는 것은 더더욱 해결책이 아닙니다. 창업한지 4년이 지난 2015년 각성은 흑자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출액은 20만불을 돌파하였습니다.



주요 상품은 자연에서 채취된 고사리, 송이 그리고 차가버섯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 선한 영향력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인의 우월정책으로 인하여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려고 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진국 내에서 살아가는 소외된 매우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진국의 문화를 바로 옆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인터넷과 핸드폰이 있습니다. 주일에 TV를 틀면 위성방송을 통하여 명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천이 되지 않는 이유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기독교인은 무뎠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복음을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원주민 마을에서 처음 시도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깨달은 것은 제가 돌쪼발 위에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이 가득한 밭에 돌도 제거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싹도 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돌 제거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언제가 누군가가 옥토 위에 씨를 뿌린 준비를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역할은 씨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돌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느긋합니다. 씨도 뿌리지 않았으니 열매는 아예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씨는 누군가가 뿌릴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초기에 선교에만 무게를 두다 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주민들이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비즈니스 감각이 없었습니다. 상품의 품질이 나쁘면 시장이 막힙니다. 시장이 막히면 비즈니스는 끝입니다. 비즈니스가 막히면 비즈니스선교도 끝납니다. 그래서 상품이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비즈니스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후에 선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 비즈니스선교의 목표

비즈니스선교의 목표는 일반회사와 같은 이익의 극대화가 아닙니다. 선한영향력의 극대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Integrity)와 나눔(Sharing)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직은 어떻게(How)에 대한 답이고 나눔은 왜(Why)에 대한 답입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하며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나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과 '나눔'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나누기 위해 돈을 번다면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벌 경우는 '정직'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정직을 실천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데 어찌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 비즈니스선교의 조언



다음은 그 동안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서 경험한 몇 가지 내용입니다.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시험하는 영적 훈련장입니다. 갑자기 비즈니스 영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선교 한다고 한 후 비즈니스가 잘못하면 선교에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자기 비즈니스 하면서 비즈니스 선교한다고 떠벌리지 말고 그냥 비즈니스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는 비즈니스가 곧 선교입니다.

당신의 가진 것 투자하십시오. 남의 돈만 가져다가 시작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 선교 한다고 후원 받은 돈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아파야

합니다. 실패해도 아프지 않으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만약 돈이 없으면 무언가 잃어 버릴 것을 만드십시오. 자신이 가진 것 투자해야 배수진 치는 것입니다. 배수진 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당신 자신의 생활 유지를 위해 이 일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선교가 당신의 생활 수단이 되는 순간 그들을 위한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떠날 것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계속하여 왕으로 남아있지 마십시오. 당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 지속되지 않은 선교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비즈니스에서 해고는 불가피 합니다. 그런데 해고를 하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큰 도시에서는 안보면 그만이지만 작은 곳에서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침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대한 이상의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 결 론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돈은 하나님과 견줄만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은 또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나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은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물질을 나누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삶이 일상을 통해서 경험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비즈니스 선교 현장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CRN 재능기부자 이 정 화 (미국 매릴랜드 주)

Q.01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매릴랜드에 살고있는 이정화라고 합니다. 저는 Deaf Studies/ American Sign Language (ASL) 를 공부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수화통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Q.02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 좀더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예배시간에 청각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화통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 말씀, 기도 모든 예배 모든 순서를 수화로 통역합니다. 졸업 한지 얼마 안된지라 직장은 기도하며 찾고있는 중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가지시게 되셨나요?

Q.03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났지만, 제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는 중고등부 수련회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찬양의 밤 행사 때마다 “수화찬양” 한 부분을 맡게 되어 자연스럽게 찬양을 통해 수화를 배우다가 전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교회에서 장애인부서와 수화통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재능(혹은 자원)으로 BAM 회사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동역하기 원하시는지요?

Q.04

다른 장애에 비해 청각 장애는 일을 배우고 일을 할수 있기에, 일을 하길 원하는 청각 장애인들이 일반 직장에서 일하고 적응할수 있도록 통역으로 Bridge역할을 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Q.05 이러한 동역을 통해 개인적으로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을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선입견을 갖는 것보다 장애인 개개인들의 가장 잘하는 능력을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주고 일을 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What is CRN ?

CBAM의 세가지 주요 사역 중에 하나인 CRN은 크리스천 비즈니스 자원을 복음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 지역의 BAM 회사들과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CRN에 등록된 BAM 회사가 CRN 프로젝트를 요청하면, 저희가 적절한 자원 제공자를 연결시켜 드리고 제안해 주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의: tcfbam.crn@gmail.com



NOTICE

북아프리카 큰 도시에서, 홈페이지 제작 및 동영상 제작으로 1-2달 인턴 하실 분을 찾습니다. (숙식 제공, 항공비 및 언어학습비는 본인 부담)
- 관심있으신 분은 tcfbam.crn@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NOTICE

The Center for BAM의 CRN Team에서 Project Coordinator로 함께 섬기길 원하시는 분은 tcfbam.crn@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한국,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멤버들로 구성된 CRN Team은 2주에 한번씩 스카이프 모임을 가지면서 Bamer들과 BAM회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기업등록

당신의 회사를 BAM company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나요?
기업등록을 클릭하셔서 회사를 등록해 주세요!
주변에 qualified BAM Company가 있다면 많이 알려주세요!



프로젝트 제안

프로젝트 제안을 원하시나요?
프로젝트 제안을 클릭하셔서 등록해 주세요!



재능기부자 등록

재능기부자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나요?
재능기부자 등록을 클릭하셔서 등록해 주세요!



CRN
CHRISTIAN
RESOURCE
NETWORK